

## 잡아함 22 겁파소문경

날짜: 11월 7th, 2023

출처: <http://www.dhamma.kr/wp/?p=17564>

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.

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셨다.

그때 겁파(劫波)라는 비구가 부처님께 찾아와 부처님 발에 머리 숙여 예배하고 물러나 한쪽에 서서 여쭈었다.

“세존께서는 ‘비구는 마음이 잘 해탈할 수 있다’고 말씀하십니다. 세존이시여, 어떻게 하면 비구는 마음이 잘 해탈할 수 있습니까 ?”

그때 세존께서는 겁파에게 말씀하셨다.

“훌륭하고, 훌륭하구나. 여래에게 마음이 잘 해탈하는 것에 대해 묻다니, 훌륭하구나. 겁파야,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 잘 사유하고 기억하라. 내 너를 위해 설명하리라.

겁파야, ‘존재하는 모든 색(色)은 과거에 속한 것이건 미래에 속한 것이건 현재에 속한 것이건, 안에 있는 것이건 밖에 있는 것이건, 거칠건 미세하건, 아름답건 추하건, 멀리 있는 것이건 가까이 있는 것이건, 그 일체는 모두 무상하다’고 관찰해 알아야 하느니라. 무상하다고 바르게 관찰하고 나면 색에 대한 애착이 곧 없어지고, 색에 대한 애착이 없어지고 나면 마음이 잘 해탈하느니라.

수(受) · 상(想) · 행(行)도 마찬가지이며, ‘식(識)도 과거에 속한 것이건 미래에 속한 것이건 현재에 속한 것이건, 안에 있는

것이건 밖에 있는 것이건, 거칠건 미세하건, 아름답건 추하건,  
멀리 있는 것이건 가까이 있는 것이건, 그 일체는 모두 무상하  
다'고 관찰해 알아야 하느니라. 무상하다고 바르게 관찰하고  
나면 식에 대한 애착이 곧 없어지고, 식에 대한 애착이 없어지  
고 나면 나는 그것을 두고 '마음이 잘 해탈하였다'고 말한다.

겁파야, 이와 같이 비구가 마음이 잘 해탈한 것을 두고 '마음이  
잘 해탈하였다'고 여래는 말하느니라. 무슨 까닭인가? 애욕  
이 끊어졌기 때문이니, 애욕이 끊어진 것을 두고 여래는 '마음  
이 잘 해탈하였다'고 말하느니라."

그때 겁파 비구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크게 기뻐  
하며 부처님께 예배하고 물러갔다. 겁파 비구는 부처님의 가  
르침을 받은 뒤에 홀로 고요한 곳에서 전일하게 정진 사유하  
면서 방일하지 않았고, ……(내지)……‘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  
다'고 스스로 알았다. 그는 마음이 잘 해탈하여 아라한이 되었  
다.

---

본 문서는 dhamma.kr에서 수집한 내용입니다.